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ume 11 Number 9, 165~181
ISSN 1738-8368(Print)
ISSN 2384-4078(Online)
http://dx.doi.org/10.14251/krcem.2015.11.9.165

군 간부들의 군 상담교육에 대한 요구도 분석*

A Need Assessment for Military Counseling Education

Jung Won Lee**, Ja Young Lee***

Department of Military and Police Counseling, Seoul Cyber University,
49 Solmaero, Gangbukgu, Seoul,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which counseling education contents are needed for officers of the armed forces from the survey of 304 officers. Three domains and 13 counseling education contents were sele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consultation, and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for each content by the t-test, the Borich needs analysi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The t-tes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level and the desired level for all of the 13 counseling education contents. The Borich needs analysis prioritized the counseling education content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determined the five contents of highest priority such as ability of forming a relationship with subordinates, ability of guiding army life, ability of identifying problem severity, ability of managing crisis, and ability of performing counseling activities. Based on the integration of the results from both Borich needs analysi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we found out that the abilities of guidng army life, managing crisis, and identifying problem severity should be educated as the first priorit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finding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military counseling, counseling education, need analysis

* 이 논문은 2014. 8-11월 육군 00사단 '필승상담능력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음.
** The 1st author. Tel. +82-2-944-5162. Fax. +82-2-980-7200. E-mail. leejw@iscu.ac.kr
*** Corresponding author. Tel. +82-2-944-5163. E-mail. hycounselor@hanmail.net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Jul. 27, 2015 / Revised: Aug. 24, 2015 / Accepted: Sep. 7, 2015

© 2015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All rights reserved.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군 간부 304명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상담교육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 및 자문 등을 통해 군 간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3개 영역, 13개의 상담교육내용을 선정하고, 13개의 상담교육내용에 대해 t검증, Borich 요구도 분석 그리고 The Locus for Model 방법을 통해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13개의 상담교육내용 모두 현재 수준과 중요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Borich의 요구도 분석을 통해 13개 상담교육의 요구도 수준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그 후, The Locus for Model을 통해 가장 필요한 교육 5개 (부하와 관계형성능력, 병영생활 지도능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식별 능력, 위기대처능력, 상담수행능력)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Borich 요구도 분석과 The Locus for Model 요구 수준의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은 병영생활지도 능력, 위기대처 능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식별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군 상담, 상담교육, 요구도 분석

Ⅰ. 서론

2014년에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들이 군대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정보사회의 발달로 인해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던 젊은이들에게 군 복무는 인생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더욱 팽배해지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폐쇄적인 군 조직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늘어가면서 신세대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는데서 발생하는 이러한 부적응적 행동과 문제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군대라는 조직에 편입하게 되는 그 자체에 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처음 입대하여 신병 훈련을 마치고 실무 야전 부대로 가면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한 가운데 개인 임무를 분담하고 더 큰 조직인 소대나 중대원들과 함께 훈련을 포함하여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 상관이나 선임자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처리하여 질책을 받기도 하고 주변에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게 된다(Jung & Gee, 2014).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으로 인한 이러한 스트레스를 겪을 때 적절한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정이 무시된 채 방치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Jung & Lee, 2011) 공격적으로 폭발하게 되어 자살이나 주변 인물들에 대한 폭행, 살해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Lee, 2014: 4). 2014년 육군 모 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더라도 관심 병사 중 한명이었던 임 병장은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하여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가 동료들에게 총기를 겨누게 된 사건의 배경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도 있지만, 임무 수행 과정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또한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www.kci.go.kr

있다(Jung, Gee, 2014).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상담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군에서의 상담은 개인 차원에서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을 겪는 이들을 도와주고 조직 차원에서는 병사들의 만족도를 높여줌으로써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Kim, *et. al.*, 2013: 5).

이에 군에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전문상담관이 아닌 군 간부들 역시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병사들을 잘 지도하고 통솔할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병사들의 심리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군 간부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내에서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군 간부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상담능력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Kweon & Kho, 2015; Chang, *et. al.*, 2012). 예를 들면 군은 S사이버대학교, A대학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해 육군 **부대에서 또래상담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Kookbangilbo, 2015; Segyeilbo, 2015; Andong MBC, 2014).

그러나 군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교육에 대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군 간부의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Chang, *et. al.*, 2012; Choi, 2007). 따라서 현재 군 간부들에 대한 상담교육이 실시는 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 간부들에게 요구되는 상담교육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군 상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군 간부들의 군 간부 상담교육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군 간부들의 군 간부 상담교육에 대한 교육요구도 중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내용은 무엇인가?

II. 문헌고찰

1. 군상담의 정의 및 특징

군상담은 “전투력 발휘를 위해 상담자가 상담대상자와 상호이해 및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상담대상자의 문제해결과 잠재능력개발을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군 상담은 “군대 내에서 상담교육을 받은 상관이 부하와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조력활동을 통해 부하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는 과정”(Kim, 2008: 228)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상담은 크게 ‘전문가 영역’과 ‘리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문가 영역의 상담이란 상담 이론과 군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있는 전문가가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병사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나 군종장교, 정신과 군의관 등이 담당한다. 반면 리더 영역의 상담이란 군 리더 즉, 군 간부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하들을 대상으로 개인 통찰, 지휘조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부하의 심리적,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Kim, *et. al.*, 2013: 7). 여기에 속하는 군 간부들은 분대장에서 대대장 등의 지휘관과 행정보급관, 주임원사 등이 해당된다.

군에서 국회에 보고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복무부적합으로 조기전역한 병사의 81%가 자해, 우울증 등 정신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z Herald, 2014). 또한, 그 외 많은 연구들에서도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상당수의 병사들이 부적응이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2011; Jung, 2012), 그 결과 자살을 선택하는 병사들이 매년 70명 이상으로 군에서의 사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Index, 2015). 이처럼 군에서 병사들의 문제가 심각한 데 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수는 적어 군 간부의 상담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군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 첫째, 군 간부들은 상담전문가가 아니다. 군 간부들은 상담 교육에 대한 절대적 시간이 매우 적어 전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해서 정보제공이나 자신의 경험담에 기초한 면담 수준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Kweon & Kho, 2015; Choi, 2005). 따라서 일반적으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평균 2년 이상의 상담경력과 지도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상담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동시에 군 간부들이 주된 역할은 상담이 아니다. 이에 군에서 자신의 맡은 임무를 하면서 동시에 병사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군상담은 일반상담과 다르다. 먼저, 21세기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성, 자율성, 능력, 경쟁력 등에 가치를 두는 반면, 군은 여전히 권위의식, 위계질서, 획일성, 강제성, 절대복종 등을 강조하고 있다(Choi & Lee, 2012). 따라서 군상담은 일반상담과 달리 이러한 군 문화에 적응하기 힘든 병사들을 군에 적응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다음으로, 내담자를 돕는 방법과 자원이 제한적이다. 군 생활에서는 개인 생활보다는 군 조직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다 실현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직을 고려하면서 내담자의 요구(want)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급자가 상담자가 되는 경우 계급 차이로 인해 친밀한 관계형성과 비밀 보장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간부 역시 보고의 의무로 인해 완전한 비밀을 보장해 주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Kim, *et. al.*, 2013: 32). 이러한 군상담의 특징으로 인해 군상담은 일반상담과는 다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www.kci.go.kr

2. 군간부를 위한 상담교육

Republic of Korea Army(2009)는 교육회장 09-지에 군 간부들의 상담자로서 역할을 제시하였는데, 그들의 공통적 역할로는 상담이 필요한 부하 식별, 상담준비/실시/상담후 조치, 상담기록유지, 자신의 능력과 제한 사항인지, 지휘계통에 의한 보고 그리고 다양한 이첩대상 기관과 연계를 들었다. 좀 더 군 간부들이 해야 하는 세부적인 역할은 자살사고예방을 위한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은 차단-식별-관리-처리단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먼저 차단단계에서는 병무청, 보충대대 그리고 신병교육대에서 신 인성검사 및 병영상담관의 상담을 통해 복무부적격자를 선별하여 입영을 차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식별단계에서는 자대에 배치된 후 대대 및 연대에서 신 인성검사결과와 병영생활지도기록부상의 나의 성장기, 병력결산보고, 관찰 그리고 상담 등을 통해 복무 부적응자를 식별한다. 그리고 관리단계에서는 사단급, 군단급에서 복무 부적응 병사를 위한 비전캠프 또는 그린캠프를 실시하고,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고 식별이 되면, 복무부적합심의 과정을 밟게 된다. 마지막 처리 단계에서는 군사령부에서 복무부적합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전역심의 및 조치를 한다. 이는 자살 예방 뿐 아니라 군에서 심각하게 부적응을 경험하는 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네 단계 중 식별단계와 관리 단계에서는 군 간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할 수 있다. 그 외에 군 간부들은 관리나 처리 단계까지 갈 정도의 위기 병사는 아니지만, 부대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병사들을 상담함으로써 조기 적응을 돕기도 하고(ROKA, 2014), 전역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병사들을 상담하기도 한다. 이를 종합하면, 군 간부들은 병사들의 적응과 이를 통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 부적응 병사의 식별, 부적응 병사에 대한 위기 상담, 전역 후 진로상담 그리고 일반 병사의 적응을 위한 상담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 간부들의 상담능력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Kim(2008)은 군 상담 모형을 만들면서, 군에서 요구되는 상담 능력으로 신상파악능력, 병영생활지도 및 교육 능력, 부하와 관계형성능력, 기초적인 상담기법, 군인성검사에 대한 간단한 해석 능력, 위기대처 능력, 진로지도 능력을 들었으며, 군 간부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신상파악요령, 병영생활지도, 관계형성, 기초적 상담기법, 간단한 검사해석 요령, 위기대처, 진로지도 집단상담 등을 들었다. 또한 Ahn(2010)은 군상담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상황에 맞는 상담기술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Kweon & Kho(2015)은 간부들이 가져야 할 역량으로 지휘보고 및 행정기록 등의 조치과 더불어 장병 및 리더의 특성 이해와 기본 상담 기술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상담지식이나 기술 보다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Choi(2005)이 국군 야전병원 재원 환자들을 상대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군전문상담관으로 적합한 사람을 병사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상담기법이 뛰어난 사람(26.7%), 탁월한 인성을 갖춘 사람(19.8%), 군상담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로 신뢰로운 관계형성(Kim, 2006: 24), 공감하려는 노력, 따뜻한 관심(Ahn, 2010) 등을 언급하면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상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이들의 주된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여 군 간부들의 상담교육 내용을 크게 세 부분 상담지식, 상담실습, 자질 및 태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군 간부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요구도 분석

요구도분석이란 개인, 조직 또는 사회에서 개인 자신이 지각하는 중요 수준과 그들의 현재 수준 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Boyle, 1981). 요구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교육대상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내용 구성할 수 있게 한다(Cho, 2009). 따라서 교육내용을 구성할 때 요구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Cho(2009)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성인교육훈련에 대해 요구분석을 한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연구들이 단순 선호도, 중요도, 필요도 등 하나의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교육대상자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수준과 중요 수준 등 2가지 척도를 동시에 사용하여 그 차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Kim, 2001).

현재수준과 중요수준의 차이에 따른 요구도 분석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첫째, 통계적으로 현재 수준과 중요 수준 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지 평균 차이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Kweon, *et. al.*, 2008). 둘째, Borich의 요구도를 활용한 방법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분석 방법은 먼저 교육대상자의 현재 수준과 중요 수준을 확인한 후 중요 수준에 가중치를 준다. 가중치를 분석한 값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교육내용들 간에 쉽게 변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의 범위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Cho, 2009). 셋째, The Locus of Focus 모델(Mink, *et. al.,* 1991)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모델은 Borich 요구도 분석이 교육내용의 일차적 대상을 알 수 없다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좌표평면에 교육내용의 우선순위를 나타낸 것으로, 가로축의 중앙값은 중요 수준의 평균값을, 세로축의 중앙값은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에 대한 평균값을 의미한다. 즉 The Locus of Focus 모델의 공식에 따라 교육내용을 좌표로 나타내면 교육내용은 <Fegure 1>과 같이 크게 4사분면으로 구분되는데, 1사분면은 HH분면으로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와 중요 수준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영역을 의미하며, 2사분면은 HL분면으로 요구 수준과 현재수준의 차는 평균이상, 요구수준은 평균이하인 영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3사분면은 LH 분면으로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가 평균 이하, 중요 수준

www.kci.go.kr

은 평균이상인 영역이며, 마지막 4사분면은 LL 분면으로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와 중요 수준이 모두 평균 이하인 영역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같은 사분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Cho(2009)은 위에 언급한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후 결과를 종합하는 통합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Cho(2009)이 제시한 통합적 방법은 항공사 객실승무원(Park, 2011), 유아교사(Cho & Kim, 2012)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교육요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Presence Level	1st Quadrant (HH)	2nd Quadrant (HL)
	3rd Quadrant (LH)	4th Quadrant (LL)
Mean of Importance Level		

<Figure 1> The Locus for Focus Model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수도권에 소재한 **사단 군 간부 304명이 참여하였다. 참여한 304명은 부사관이 204명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하였으며, 위관급은 100명으로 37.4%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인 계급을 살펴보면, 하사가 99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사 73명 (24.0%), 상사 32명(10.5%), 소위 25명(8.2%), 중위 41명(13.5%), 대위 34명(11.2%)이었다. 성별로 보면 전체 304명 중 남자는 294명(963.7%), 여자는 10명(3.3%)으로 대부분이 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7.46세(SD= 5.47)였으며, 평균 군 경력은 6.18년(SD= 5.86)으로 나타났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군 간부들에게 필요한 상담교육내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총 15개의 상담교육내용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관련학과 교수이자 상담심리전문가 2인의 검수를 받아 중복되는 2개를 제외한 13개의 상담교육내용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런 후 군 간부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Cho(2009)이 제시한 아래의 4 단계 과정을 통해 군 간부들의 상담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직업군인들의 상담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1단계로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직업군인들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상담교육의 중요 수준과 현재 자신의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바탕으로 Borich(1980)의 요구도 산출을 통해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때 사용된 Borich 요구도 공식은 다음과 같다.

$$\frac{\sum(\text{중요수준} - \text{현재수준}) \times \text{중요수준평균}}{\text{전체사례수}}$$

3단계에서는 The Locus for Focus Model(Mink, *et. al.,* 1991)을 활용하였다. 좌표평면의 가로축 중앙값은 중요 수준의 평균값, 세로축의 중앙값은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에 대한 평균값으로 하여 각각의 교육내용을 좌표에 표시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2단계와 3단계의 결과를 종합하였다. 먼저, Borich 요구도 공식 중 요구도 점수가 높은 것에서부터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해 산출한 결과 중 1사분면 즉 HH 분면(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와 중요 수준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영역)에 속한 항목의 개수만큼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그 결과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해 산출한 결과를 비교하여 중복성 여부를 체크하였다. 이 때 최종적으로 중복된 교육내용을 최우선으로 실시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선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상담교육의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 간의 차

군 간부들의 상담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부들이 상담교육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과 현재 자신의 능력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교육 내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교육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육 내용은 부하와 관계형성 능력, 병영생활지도 능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식별 능력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병리에 대한 지식과 심리검사에 대한 지식은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지식에 대한 내용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수행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또한 현재 자신의 상담 능력은 부하와 관계형성 능력, 상담자로서의 개인 인성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순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병리에 대한 지식과 심리검사에 대한 지식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로서의 자질 및 태도는 갖췄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상담과 관련된 지식 부분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부하와의 관계 형성능력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현재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병리 및 심리검사에 대한 지식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 in Level of Importance and Presence in Counseling Education

	Level of importance		Level of presence		Difference of level		
	M	SD	M	SD	M	SD	t
1	4.25	10	3.95	5	.45	.93	8.43***
2	3.98	13	3.35	13	.63	1.03	10.67***
3	4.00	12	3.52	12	.48	1.02	8.28***
4	4.30	8	3.74	10	.57	.96	10.32***
5	4.58	2	4.01	4	.57	.77	12.85***
6	4.63	1	4.13	1	.50	.75	11.64***
7	4.42	5	3.85	8	.58	.89	11.27***
8	4.03	11	3.68	11	.35	.99	6.11***
9	4.34	7	3.81	9	.49	.93	9.29***
10	4.53	3	3.92	6	.62	.88	12.15***
11	4.51	4	4.08	2	.43	.82	9.21***
12	4.38	6	4.03	3	.35	.84	7.28***
13	4.30	9	3.89	7	.41	.84	8.60***

※ ***p<.001

※ [counseling knowledge] 1. general counseling knowledge, 2. psychopathology knowledge, 3. psychological test knowledge, 4. counseling technique knowledge, [counseling practice] 5. ability to guide army life, 6. ability to have rapport with subordinates, 7. crisis management ability, 8. ability to guide career, 9. counseling performance ability, 10. ability to distinguish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qualification and attitude] 11.individual personality as a counselor, 12. social responsibility as a counselor, 13. self-examination and self-development as a counselor

2. 상담교육에 대한 Borich 요구도

상담교육에 대한 Borich 요구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식별 능력이 2.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위기대처능력 2.08, 정신병리에 대한 지식이 2.07, 상담기법에 대한 지식 2.01, 병영생활 지도 능력 2.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로서의 성찰 및 자기계발, 상담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이나 진로지도능력은 각각 1.43, 1.31, 1.19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요

구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상담자로서의 자질 및 태도 영역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Ranking of Borich' Need Analysis on Counseling Education

Counseling Education Contents	Need Value	Ranking
ability to distinguish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2.10	1
crisis management ability	2.08	2
psychopathology knowledge	2.07	3
counseling technique knowledge	2.01	4
ability to guide army life	2.00	5
counseling performance ability	1.77	6
ability to have rapport with subordinates	1.75	7
psychological test knowledge	1.71	8
individual personality as a counselor	1.63	9
general counseling knowledge	1.51	10
self-examination and self-development as a counselor	1.43	11
social responsibility as a counselor	1.31	12
ability to guide career	1.19	13

3.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한 우선순위

<Table 3> The Highest Priorities by Using the Locus for Focus Model

Quadrant	Education Contents
first quadrant (H, H)	ability to have rapport with subordinates, ability to guide army life, ability to distinguish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crisis management ability, counseling performance ability
Second quadrant (H, L)	counseling technique knowledge, psychopathology knowledge
Third quadrant (L, H)	individual personality as a counselor, social responsibility as a counselor
Four quadrant (L, L)	psychological test knowledge, ability to guide career, general counseling knowledge, self-examination and self-development as a counselor

Borich 요구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사용하였다.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가 평균보다 높고 중요 수준 역시 평균 보다 높은 1사 분면(HH 분면)은 가장 필요한 교육이 해당된다. 그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사분면에 '부하와 관계형성능력', '병영생활 지도능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식별 능력', '위기대처능력', '상담수행능력'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사분면에 포함된 교육 내용은 모두 상담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이 차이가 평균보다 높지만, 중요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2사분면 (HL 분면)에는 상담기법과 정신병리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었으며, 중요 수준과 현

www.kci.go.kr

재 수준이 차이가 평균보다 낮지만, 중요 수준은 평균보다 높은 3사분면(LH 분면)에는 상담자로서의 개인 인성과 상담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의 차이가 평균보다 낮고 중요 수준 또한 평균보다 낮은 4사분면(LL 분면)에는 심리검사에 대한 지식, 진로지도 능력, 일반적인 상담 지식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성찰 및 자기계발이 포함되었다. 즉 4사분면은 가장 상담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간부들의 최우선순위 상담교육내용

최종적으로 간부들의 상담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Borich의 요구도 분석결과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The Locus for Focus 모델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도출된 교육내용 즉 1사분면에 포함된 교육내용의 개수 5개를 선정하였으며, 동시에 Borich 요구도가 높은 5개의 교육내용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Borich의 요구도와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활용한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공통적으로 요구가 높은 교육내용은 병영생활지도 능력, 위기대처 능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식별능력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모두 상담실습영역에 있는 교육내용으로 간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Table 4> The Ranking on Counseling Education of Army Officers

Counseling Education Contents		Methods Proposed Highest Priorities	
		Top 5 in Borich need value	First quadrant contents in the Locus for Focus Model
Counseling Knowledge	general counseling knowledge		
	psychopathology knowledge	○	
	psychological test knowledge		
	counseling technique knowledge	○	
Counseling Practice	ability to guide army life	○	○
	ability to have rapport with subordinates		○
	crisis management ability	○	○
	ability to guide career		
	counseling performance ability		○
	ability to distinguish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	○
Qualification and Attitude	individual personality as a counselor		
	social responsibility as a counselor		
	self-examination and self-development as a counselor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직업군인인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상담교육내용과 상담교육내용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 간부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검증, Borich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Model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필요하다라고 조사된 교육내용 13개에서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 간부들이 상담교육이 중요한 것에 비해 실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 간부들에 대한 상담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담교육이 부족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Kim, 2007; Ahn, 2010), 이는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수혜자의 자발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군 간부들의 상담교육에 대한 중요 수준과 현재 수준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하와 관계형성 능력과 병영생활지도능력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식별 능력을 중요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영생활지도능력과 문제의 심각성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반면 현재의 수준에서는 13개 교육내용 중 12, 13위를 차지하여 중요한 것에 비해 현재 자신의 능력은 매우 낮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하와 관계형성 능력과 상담자로서의 개인 인성은 현재 자신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조직의 특성상 군 간부(상담자)와 병사(내담자) 간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지휘관과 상담자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계형성이 어렵다(Kim, 2006: 23)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군 간부가 관계형성을 잘 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관계에 대한 군 간부(상담자)와 병사(내담자)의 지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각의 차이를 고려하여 군 간부와 병사의 상담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Borich 요구도 값과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분석하여 전체 상담교육내용의 요구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13개의 상담교육내용 중 병영생활지도 능력, 위기대처 능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식별 능력이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군에서 자살, 폭력과 같은 위기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요구가 큰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상담자가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점은 상황에 맞는 상담기술이라는 점(Ahn, 2010)을 고려한다면, 다른 어떤 상황보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식별 능력 또한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나타났는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식별 능력은 자살이나 폭력과 같은 위기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Kim(2007) 역시 부하에 대한 관심, 칭찬과 함께 상담이 필요한 부하를 식별해야 하는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역시 일치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개인 인성, 상담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심리검사에 대한 지식, 진로지도능력, 일반적인 상담 지식 그리고 상담자로서의 성찰 및 자기계발은 상대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교육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간부들의 상담에 대한 교육요구를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군에서 병사들의 자살, 병사들 간의 폭력, 성추행 등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담에 대한 교육 특히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필요성에 의한 교육이지 실질적으로 군 간부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담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상담교육에 대해 군 간부들의 요구를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군 간부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 동안 군 간부들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지도 등을 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 힘들어하는 지, 어떤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군 간부들이 각 영역별로 상담에 대한 수준을 파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군 간부들의 상담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의 우선순위를 조사함으로써 군 간부들을 위한 상담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동안 군에서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상담 교육들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결과 군 간부들의 상담 전문성을 향상시키지 못해왔다(Chang, *et. al.*, 2012). 따라서 국방의 의무라는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상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군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요구도 조사를 통해 군 간부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 간부들을 위한 상담교육 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계급, 경력, 보직 등 상담교육 요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통제하지 못했다. 계급이나 보직 등에 따라 상담의 횟수와 상담에 대한 관심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관련 변인을 통제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 간부들에게 필요한 상담교육을 13가지로 제한하였다. 13가지의 교육내용은 관련 선행연구,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교수 2인의 검토 등을 거쳐 개발함으로써 필요한 교육 내용을 다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간부들에게 필요하지만 고려되지 않은 교육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군 간부 또는 내담자인 병사들과 인터뷰 등을 통해 선정된 교육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된 교육 내용들을 중심으로 군 간부들의 군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Ahn, Kyoung Han. 2010. An Analysis on the Roles, Demands, and Satisfaction of Military Counseling Services. MA Dissertation, Kangwon University.

Andong MBC. http://www.andongmbc.co.kr/

E Country Index. http://www.index.go.kr.

Borich, G, A. 1980. A Need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1): 39-42.

Boyle, P. G. 1981. *Planning better programs*. New York: McGraw-Hill.

Cho, Dae Yeon. 2009. Exploring How to Set Priority in Need Analysis with Survey.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5: 165-187.

Cho, Hyea Jin and Ok Ju Kim. 2012. A need analysis on job training for the beginning infant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2): 105-126.

Choi, Bo Young. 2005. A Survey and Need Analysis of Counseling Activity: Focused on Inpatients of Military Hospitals in Korea. MA Dissertation, KwangWoon University.

Choi, Hyun Ju and Jayoung Lee. 2012. Qualitative Research of Burnout Experience among Non-Commissioned Soldiers. *Counseling Journal*. 13(6): 2777-2802.

Choi, Hun Il. 2007. A Survey on Army Soldiers' Needs For Counseling and their Perceptions of Military Counseling Services. MA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Herald Biz. http://news.heraldcorp.com/

Jang, Jeong Gee, Kyu Shin Hong, Kyung Soon Kim, and Sang Hae Byun. 2012. Effectiveness of Command Counseling Program Development for Young Leader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Journal*. 12(11): 155-165.

Jeung, Shin-Young and Dong-Gwi Lee. 2011.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oldiers at Suicide Risk.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3): 897-914.

Jeong, Weon Cheol and Hyang Suk Ji. 2014.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Life Stress and Military Adjustment of Soldier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Journal*. 14(9): 311-320.

Jung, Eun-Ju. 2012. The Effects of Soldiers'mental Health and Stress Coping Behaviors on Military Adaptation. MA Dissertation, Dongshin University Social Development Graduate.

Kim, Jin Wha. 2001. *Development of Life Long Education Program*. Seoul: Hakjisa.

Kim, Moo Young. 2007. *Counseling Skills*. Army Readership Center.

Kim, Sun Young. 2011. Influencing Factors on Perceived Stress and Mental Health Among Army Soldiers. MA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Kim, Tae Hyoun, Lee Jung Won, & Lim Ik Soon, 2013. *Counseling Programs for Military*. Paju: Kyomunsa

www.kci.go.kr

Kim, Wan Il. 2006. *Military Counseling*. Seoul: Hakjisa.

Kim, Wan Il. 2008. A Study on a Military Counseling Model.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2): 221-241.

Kookbangilbo. http://kookbang.dema.mil.kr/

Kwon, Dae Bong, Sun Joo Hur, and So Yi Kim. 2008. Needs Analysis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Students at the College of Education-Focus on K University.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4(1): 225-245.

Kwon, Oh Yeol and Hong Wol Kho. 2015. A Study of Conceptual and Organizational Framework to Build Military Counseling.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31(1): 237-270.

Lee, Jung Won. 2014. Study on recognition of military counselor's role and military prospect in the future. Seoul Cyber University The Institute for the Future of Society. 5(1): 37-62.

Mink, O. G., J. Shultz, and B. P. Mink. 1991. *Developing and Managing Open Organizations: A Model and Method for Maximizing and Organizational Potential*. Austin: Somerset Counseling Group. Inc.

Park, Hye Young. 2011.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riority of Educational Needs in Curriculum of Departments related to Airline Service.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Journal*. 11(11): 521-535.

ROKA. 2007. *Year of 2007 Guideline of Preventing Accidents*.

ROKA. 2009. *Educationbulletin 09-Ji*. Military Counseling.

ROKA. 2013. *Symposium for Armed Forces Mental Health*. Seoul: Army Press.

ROKA. 2013. *Army Couneling*. Seoul: Army Press.

Segye Ilbo. http://www.segye.com/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

권대봉, 허선주, 김소이. 2008. 사범대학 재학생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요구분석: K대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4(1): 225-245.

권오율, 고홍월. 2015. 군 상담의 개념적, 조직적 체계 구축 방안 연구. 국방정책연구. 31(1): 237-270.

김무영. 2007. 상담기법. 육군리더십센터.

김선영. 2011. 육군 병사의 지각된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영향 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완일. 2006. 군 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김완일. 2008. 군상담모형의 탐색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2): 221-241.

김진화. 2001.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서울: 학지사.

김태현, 이정원, 임익순. 2013. 장병을 위한 군상담프로그램. 파주: 교문사.

박혜영. 2011. 항공관련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교육요구도 비교분석,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1): 521-535.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안경한. 2010. 군상담의 역할과 만족도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동 MBC. http://www.andongmbc.co.kr/

육군본부. 2007. '07년 사고예방활동 추진 지침.

육군본부. 2009. 교육회지 09-지. 군 상담.

육군본부. 2013. 육군장병 정신건강 심포지엄. 서울: 육군인쇄창.

육군본부. 2013. 병영상담. 서울: 육군인쇄창.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이정원. 2014. 군 상담사의 역할 인식과 미래 군의 전망. 미래사회.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연구소. 5(1): 37-62.

장정기, 신홍규, 김경순, 변상해. 2012. 군 초급지휘자 상담능력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1): 155-165.

정신영, 이동귀. 2011. 자살 위험 병사들의 심리 특성 연구. 상담학연구. 12(3): 897-914.

정원철, 지향숙. 2014. 군 생활스트레스가 병사의 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311-320.

정은주. 2012. 병사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대처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대연. 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35: 165-187.

조혜진, 김옥주. 2012. 영아반 초임교사의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7(2): 105-126.

최보영. 2005. 군상담의 실태 및 상담에 대한 요구분석.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현주, 이자영. 2012. 직업군인(부사관)의 소진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3(6): 2777-2802.

최훈일. 2007. 군상담의 실태 및 상담에 대한 요구분석: 육군병사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군

www.kci.go.kr

상담, 군 부적응자를 위한 프로그램, 군 정신건강, 군인 가족 상담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자대배치 단계에서의 군부적응 병사의 유형과 관리 상황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2012)”, “그린캠프 입소자를 위한 문제해결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2014)” “군에서의 자기 계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2015)”등이 있다 (leejw@iscu.ac.kr).

이자영: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상담)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군 상담, 청소년 상담, 위기상담, 소진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직업군인(부사관)의 소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2012)”, “Academic Burnout Profiles in Korean Adolescents(2010)” 등이 있다 (hycounselor@hanmail.net).

www.kci.go.kr